

# ‘38년간 706골’ 프리킥의 승부학

K리그 706골 중 504골 오른발 선수 따라 궤적·방향·속도 달라져 수원 삼성 염기훈, 17골로 최다 광주 FC, 이도훈 지난해 5골 후반 추가시간에 33골 터져 승부 바꾼 극장골은 8차례

축구에서 프리킥은 골대를 직접 겨냥해 분위기를 바꾸는 좋은 기회다.

1983년 출범한 K리그에서는 706골이 프리킥 상황에서 기록됐다. 수원 삼성의 염기훈은 17차례 프리킥골을 터트리며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K리그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총 2만711골이 터졌다. 이 중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가 직접 골대를 가른 경우는 706번에 이른다. 전체 득점 대비 3.4%다.

2015년은 프리킥골이 가장 많이 터진 시즌이다. 오르샤(전남), 염기훈(수원), 제파로프(울산)가 3골을 기록하는 등 총 50골이 직접 프리킥 골이었다.

득점 대비 직접 프리킥 골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즌은 2006년으로 총 608골 중 41골(6.7%)이 직접 프리킥으로 만들어졌다. 이해 뽀뽀(대전)가 7골, 김형범(전북)이 4골을 넣으면서 프리킥의 묘미를 보여줬다.

키커에 따라서 프리킥의 궤적과 방향,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차이점을 지켜보는 것도 프리킥의 매력이다.

직접 프리킥 706골 중 504골이 오른발로 만들어졌다. 나머지 202골은 왼발에서 나왔다.



17골로 프리킥골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는 수원 삼성의 염기훈이 프리킥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편 프리킥 슈팅의 방향을 공식기록하기 시작한 2013시즌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번의 직접 프리킥 골이 나왔고, 골이 만들어진 지점은 왼쪽(128골·49.2%), 오른쪽(122골·46.9%), 가운데(10골·3.9%) 순이었다.

‘프리킥 스페셜리스트’하면 염기훈이 먼저 떠오른다. 실제로 그는 2008년 첫 프리킥골을 시작으로 모두 17골을 넣으면서 프리킥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있다. 17골 모두 왼발에서 터졌다.

오른발 스페셜리스트로는 전북의 예닝요가 있다. 예닝요는 2007시즌부터 2012시즌까지 여섯 시즌 동안 빠짐없이 프리킥골을 넣는 등 17골로 염기훈과 프리킥 득점 공동 선두다.

김형범(14골), 이천수(12골), 신태용·고종수

(이상 10골)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광주FC의 이도훈이 새로운 ‘프리킥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이도훈은 지난 시즌 프리킥 상황에서 5차례 득점 세리머니를 하며 안드레(2000년), 뽀뽀(2006년)에 이어 한 시즌 프리킥 득점 2위를 차지했다. 수비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승부를 결정할 ‘프리킥 극장골’은 8번 터졌다.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프리킥골은 33골로, 이 중 팀에 승리를 안긴 축구판 ‘버저비터’는 총 8차례에 이른다.

가장 최근 ‘프리킥 극장골’은 지난해 4월 상주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9라운드에서 만들어졌다. 2-2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제주의 율봉가람

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따낸 프리킥을 오른발로 성공시키며 3-2 승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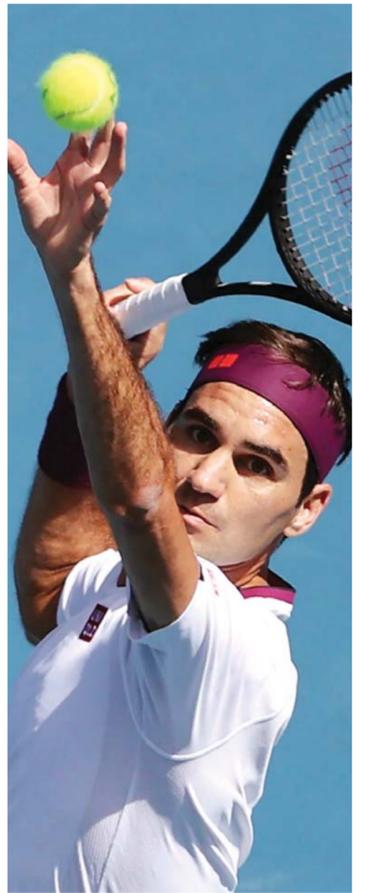
이도훈의 프리킥골은 2019시즌 K리그2 우승팀을 바꾼 결정적인 골이기도 했다.

이도훈은 24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42분 왼발 프리킥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했던 부산은 세 번째 대결에서도 이도훈의 프리킥에 막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뒷심에서 앞선 광주는 부산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끝까지 1위 자리를 지키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불혹’의 페더러 올림픽 한번 더?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세계 팬들, 다섯번째 출전 관심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불혹의 나이에도 현역 선수로 몇 년인가.

올해 7월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미뤄지면서 페더러가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1981년 8월생인 페더러는 2021년 8월이 되면 만 40세가 된다.

1987년생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1986년생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등 30대 중반 선수들이 여전히 페더러와 함께 ‘빅3’를 이루고 있지만 20대 나이의 젊은 선수들이 세계 10위 안에 5명이나 들어있는 상황에 40대 나이에 선수로 뛰는 페더러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임이 틀림없다.

페더러는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올림픽에 데뷔, 2012년 런던 대회까지 4회 연속 출전했다.

2008년 베이징 대회 남자 복식 금메달, 2012년 런던에서는 단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직 단식 금메달이 없는 페더러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 복귀를 노리는 페더러는 2018년 일본 의류회사 유니클로와 후원 계약을 하고 이때부터 ‘계약서에 도쿄올림픽 출전과 관련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니클로 관련 행사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페더러는 올해 2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6월 코트로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 후 약 한 달 만에 올림픽 코트에 서는 계획이었으나 올림픽이 2021년으로 미뤄지면서 무릎 상태를 끌어올릴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불과 1년이라고 해도 만 39세와 만 40세의 차이는 무릎 상태가 좋아지는 것 이상의 체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페더러의 최근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18년 1월 호주오픈, 최근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은 지난해 7월 윌리엄스 준우승이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는 4강까지 올랐다.

역대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는 1908년 런던 대회 메이저 리치(영국)로 당시 나이 38세였다.

하지만 테니스가 올림픽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정식 종목이 된 1988년 서울 대회 이후로는 30대 금메달리스트는 한 명도 없다. /연합뉴스

# KIA ‘안도의 한숨’

발열 선수 코로나19 음성 판정...야간훈련 취소·나홀간 선수들에 휴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해제된 KIA 타이거즈가 한 박자 쉬어간다.

KIA는 25일 오전 한숨을 돌렸다. 전날 미열로 선별 진료소로 향한 선수의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비상 상황이 해제된 것이다.

전날 KIA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훈련을 일찍 종료했다. 훈련 전 체온 측정에서 37.4도의 미열을 보인 선수가 나오면서, 구단이 선제 대응 조치로 훈련을 중단시킨 것이다.

미열 증세를 보인 선수는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 함께 훈련한 선수들과 관계자

들에게는 자택 대기 조치가 내려졌다. 다행히 검진 결과 해당 선수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택 대기가 해제됐다.

KBO가 최근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고 및 선별 진료소 진단검사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택 대기 즉시 해제와 활동 재개가 이뤄진다.

음성판정은 나왔지만 KIA는 훈련 재개 대신 휴식을 선택하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유증상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후 1시 예정됐던 홈

백전을 취소한 KIA는 오후 6시로 잡혀있던 야간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나올간 선수단이 폭 쉬어가기로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코칭스태프 미팅을 갖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훈련을 비롯해 28일까지 예정된 훈련과 홈백전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휴무는 4월 초 개막에 맞춰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훈련을 이어온 선수단의 피로가 누적됐고, 이에 따른 컨디션 회복 차원이다.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지난 16일 귀국 이후 하루만 쉬 뒤 18일부터 훈련과 자체 연습경기를 이어왔다. 또 26일부터 이틀간 광주 지역에 비가 예보됐고, 개막이 내달 20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스케줄에 변화를 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는 플로리다에서부터 이미 많은 실천(23경기)을 소화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휴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마침 비 예보도 있어

지금 휴식을 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으로 휴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은 “29일 오후 2시 훈련이 재개되면 훈련과 홈백전을 통해 4월 7일 이후 예정된 연습경기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 중인 퓨처스 선수단과 재할·잔류조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두산베어스도 이날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한숨 돌렸다.

두산은 지난 24일 선수 가족 한 명이 직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훈련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선수의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두산 선수단의 자택 대기도 해제됐다. 두산 선수들은 25일 잠실에서 훈련을 재개하고, 자체 평가전도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올림픽 미뤄져도...우린 멈추지 않는다



올림픽 핸드볼 사상 최초로 남녀를 통틀어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금자탑을 쌓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미뤄진 다음 날인 25일에도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